

성탄 감사 주일

제230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12.22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성탄감사예배

감사와 찬양

예배로 부름 인도 및 집례: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성서교독 성탄절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인도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성도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인도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도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도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도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인도자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성도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인도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고백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찬

말씀읽기 이사야 61:1-3 다같이
 말씀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떡과 잔을 나눔 다같이
 응답의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응답과 감사

특순 Hark the herald angels sing 교육부 '코너스톤'
 특순 그 어린 주 예수 김홍현 목사, 최경혜 사모
 특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김고은 집사, 이건명 집사
 특순 오 거룩한 밤 김고은, 김홍현, 이건명, 최경혜
 찬양 저 들 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23

저 들 밖에 한밤중에

(통일 123)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성탄

Traditional English Carol, 17th Century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녹 2:8)

THE FIRST NOEL: 8.8.8.8. REF.
W. Sandys' Christmas Carols, 1833
Arr. by J. Stainer, 1871

보통으로

1. 저 들 밖 에 한 밤 중 에 양 틈 에 자 던 목 자 들
2. 저 동 방 에 별 하 나 가 이 상 한 빛 을 비 추 어
3. 그 한 별 이 베 들 레 험 향 하 여 바 로 가 더 니
4. 저 동 방 의 박 사 들 이 새 아 기 보 고 절 하 고

천 사 들 이 전 하 여 준 주 나 신 소 식 들 었 네
이 땅 위 에 큰 영 광 이 나 타 날 징 조 보 였 네
아 기 예 수 누 우 신 집 그 위 에 오 자 먼 찼 네
그 보 배 합 다 열 어 서 세 가 지 에 물 드 렸 네

후렴

노 엘 노 엘 노 엘 노 엘

이스라 엘 왕 이 나 셧 네 아 멘

1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일 115)

성탄

I. Watts(1674-1748)

Joy to the world!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ANTIOCH: 8.6.8.6.6.8.

G. F. Handel, 1742

Arr. by L. Mason(1792-1872)

조금 빠르게

1.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2.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3.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
 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관하시니 만국 백

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의 만물 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품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 찬양하여라 다

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라 다 화답 화답 하여라
 네 다 구원 구원 하시네
 라 다 경배 경배 하여라 아 멘

찬양하여라 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사61:1-3]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상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저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부르신-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믿 네-
놀라운-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날부 르신뜻- 내 생 각 보 다 크 고 - 날 향



한 계획- 나의지혜로 측 량못-하 나- 가 장



좋은길로-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 도 날 이끄심-믿 네
신실 하 신 주를찬-양 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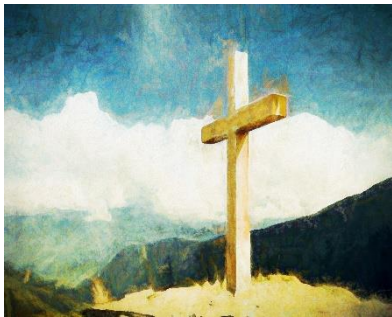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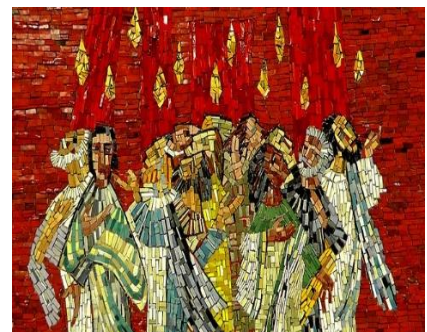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성경통독 요한복음

요한복음 성경통독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하루 한장 복음서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모임과 예배

식사와 행복한 모임: 12월31일 저녁7시 (선물교환이 있습니다. 개인당 1만원정도의 선물준비)
송구영신예배: 밤11시
송구영신모임 식사를 준비해주신 장천,장현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기도 특강

일시: 다음주 12월29일 주일 오후1:30 / 강사: 김정인 권사

식사 섬김, 커피드립백 선물 감사

성탄을 맞아 식사를 준비해주신 분께(K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탄 축하 커피드립백(전정민 전도사 가정 준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받아 가세요.

* 새해에도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식사섬김 신청받습니다.

새해 달력

2025년 새해 달력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배 마친 후 받아 가세요 ^^

내년부터 새한글 성경 사용

2025년부터 길목교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새한글성경'을 사용합니다. 새해되기 전에 구입해주세요. 오케이바이블,갯피플몰,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길목교회 성지순례

현재까지 23분 신청(외부 포함 총 27명)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감사로 채워지며, 은혜로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한 중보

교육부서가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목교회를 위해 새롭게 필요한 예배장소를 허락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